

‘불량 1회용접시’ 업체의 고백... “다이소 외에도 더 납품”

제조업체 에스엔비, 양주시에 자율 회수 계획 제출 다이소 “부적합 제품, 다른 거래처에도 납품” 주장 타사 납품 제품 적합 여부 시험 결과는 아직 없어

다이소에서 판매된 일회용 접시에서 위해성이 확인돼 회수 조치 중인 가운데 제조업체 사장이 “다이소 말고도 납품된 거래처가 더 있다”고 밝혔다.

26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에스엔비(SNB) 사장 A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문제가 된 제품을 B사와 C사에도 납품했다고 말했다. 에스엔비는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총용출량 기준 부적합 일회용 접시 제조업체다. A씨는 “(다이소와 타사에 납품하는 일회용 접시들) 동일한 날짜는 아니지만 같은 생산 라인에서 만든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이 B사와 C사로도 유통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스엔비는 전날 양주시에 B사 납품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다.

관할 지자체인 양주시 관계자는 “에스엔비가 메일로 (자율) 회수 계획서를 보내왔다”며 “해당 회수 계획서는 앞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다이소 납품 제품이 아닌 타사 납품 제품에 대한 자율 회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에스엔비가 보내온 계획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자체나 식약처가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식약처 위해식품 회수지침은 회수를 강제 회수와 자율 회수로 구분하고 있다. 강제 회수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회수이며, 자율 회수는 강제회수 이외의 위생상 위해 우려가 의심되거나 품질 결함 등의 이유로 영업자가 스스로 실시하는 회수를 말한다. 에스엔비의 B사 납품 제품에 대한 회수는 자율 회수에 해당한다.

이번 자율 회수 계획과 별개로 에스엔비가 식약처와 관할 지자체에 허위 보고를 한 점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에스엔비는 식약처와 양주시에 회수 건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을 때 “문제가 된 원료와 생산 라인은 다이소 납품에만 쓰인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하지만 에스엔비가 뒤늦게 말을 바꾸며 자율 회수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위 보고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A씨는 자율 회수 계획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혹시 (문제 제품이) 섞여 들어갔을 수 있어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스엔비의 B사에 대한 자율 회수 소식을 접한 다이소는 “에스엔비가 초기에 회수량 등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축소 보고를 한 것 같다”며 “자사뿐만 아니라 B사, C사에 모두 (이번에 부적합 받은 것과) 동일한 제품이 납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모든 공급처에 대한 회수가 실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식약처는 에스엔비가 제



조한 친환경 일회용 접시(SNB-140) 10개입, 친환경 일회용접시(SNB-140) 16개입 등 2종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해당 제품은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총용출량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총용출량은 용기를 사용했을 때 용기로부터

터 식품에 용출돼 나오는 비휘발성 물질의 양을 측정한다. 총용출량 부적합은 해당 제품에 음식물을 담았을 때 용기의 원료 물질이 음식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묻어 나온다는 의미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모두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이다. 서선욱기자



내년에 만나요 26일 오전 2024학년도 수시모집 눈술고사가 열리는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한국외대 홍보대사 HUFH HANA가 고사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10명 중 1명 극단적 선택 고민

“지속·반복 요건 추가 안돼”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10명 중 1명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가 ‘엘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4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괴롭힘 경험자의 10.9%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노동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표, 임원, 경영진 등 사업주가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는 19.2%였다.

올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 이메일 1592건 중 53건에도 극단적 선택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나 관련된 사항이 포함됐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이 7.7%였지만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경우는 3배에 가까운 20.6%에 달했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괴롭힘 자체만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기도 하지만 괴롭힘 신고 이후 조사가 기약 없이 길어지거나 보복을 당

하는 등과 같이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및 불이익의 처우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이 지난 3월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는 업무능력 및 성과 미인정, 조롱, 차별, 배제, 감시, 회식 참여 강요 등의 괴롭힘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평균 주 1회 이상 반복되는 요건이 충족될 경우 괴롭힘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이를 두고 직장갑질119는 “괴롭힘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개념 정의의 규정에서 추가해야 한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주장과 결을 같이 한다”며 “사실상 죽기 직전까지 참으라는 지침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주 1회·3개월 이상 지속돼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만들어졌다”며 “현행 법조차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사업주가 괴롭힘 당사자인 경우 조사 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 등 다양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권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